

					III-A-4
제목	국문	모유수유가 폐경전 여성의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			
	영문	Effect of lactation on incidence of hypertension in pre-menopausal women			
저자 및 소속	국문	이순영, 김선우 ¹ , 김진희, 김민지 ¹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삼성생명과학연구소 ¹			
	영문	Soon Young Lee, SeonWoo Kim ¹ , Jin-Hea Kim, Mingi Kim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amsung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¹			
분야	역학 [고혈압(관리)]	발표자	이순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환경적 소인으로서 비만, 음주 및 염분 섭취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간의 혈압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는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기존의 고혈압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여성들의 고유한 특성인 생식관련 변수(reproductive factor)가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한국 여성의 생식관련 행위가 과거 30-40 년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여성에 있어 이와 관련된 변수는 여성의 건강 및 질병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로 인정된다. 특히 모유수유의 영향은 주로 출생아에 미치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 난소암 및 골다공증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수유는 체내의 호르몬 및 체내 혈류량 등의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써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임상적 견해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경전 여성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며, 특히 수유가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p> <p>2. 방법</p> <p>1) 연구대상: 본 여성 코호트는(The Korean Women's Cohort Study)는 1994 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여성 피보험자 중에서 20 세 이상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수진자(256,942 명) 중 폐경전 여성 185,65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수유경험에 관한 설문자료가 불충분하거나(701 명), 기초시점에서 고혈압환자(7,066 명)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77,749 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추적기간은 1995 년 1 월부터 1998 년 12 월까지이다.</p> <p>2) 자료수집: 기초시점(baseline)의 폭로변수는 크게 생활습관변수, 생식관련변수 및 비만도로서 생활습관변수는 1994 년 문진표에서 생활습관(흡연력, 음주력, 운동여부) 및 여성관련변수(초경연령, 피임역복용, 폐경여부, 자녀수, 수유경험력) 등을 사용하였다. 비만도와 혈압수준은 1992 년과 1994 년 건강검진자료에서 신장, 체중, 혈압수준의 각각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혈압은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각각 140mmHg 이상 또는 90mmHg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비만의 기준은 BMI 85 percentile 이상인 22.3kg/m² 로 정의하였다.</p> <p>3) 통계분석: 각 변수별 이변량분석으로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Cox's 생존분석으로 모유수유가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p> <p>3. 결과</p> <p>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32.2 세(표준편차 7.1 세), 현재흡연자 0.5%, 음주자는 20.6%, 운동하는 경우는 12.5%, 유자녀 경우 평균 자녀수 1.7 명, 경구피임약 복용자 1.9%, 분만한 경우 수유경험을 및 평균수유기간은 각각 31.0%, 8.2 개월이었다. 추적기간 4 년(827,342 인년)동안 고혈압 발생은 16,966 명이 확인되었다. 고혈압 발생에 대한</p>					

다변량 Cox's 의 생존분석 결과 수유는 고혈압 발생을 감소시켰다(비교위험도 0.9, 95%CI 0.9-0.9). 수유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혈압에 대한 발생위험이 1-12 개월 수유한 경우는 0.9(CI 0.9-0.9), 13-24 개월 수유한 경우는 0.9(0.9-1.0), 24 개월 이상 수유한 경우는 1.1(1.0-1.1)이었다. 특히 비만한 경우 수유하지 않는 경우는 고혈압 발생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만과 수유변수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interaction term에 대한 p 값

4. 고찰

분만과 관련된 생식관련 특성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수유군과 비수유군에 대한 혈압수준 및 심박출량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두군간 차이가 없었으며(Robson 등 1989), 6 번 이상의 임신은 관상동맥질환이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Ness 등, 1993). 한편 수유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bromocriptine mesylate 가 고혈압을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수유는 고혈압 발생위험을 약 10% 감소시키며 특히 비만도와 교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유의 고혈압 위험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용량-반응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아이당 1-6 개월, 총 수유기간 1-12 개월이 가장 최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